

15~64세 고용률 역대 최초 70.0%

- 조사기간 중 휴일 포함 등 일시적 요인 등으로 5월 취업자 증가세 주춤
- 최근 경기 개선 흐름이 향후 고용에 긍정적 영향 전망

① '24.5월 15~64세 고용률이 70%를 사상 최초로 기록(70.0%, +0.1%p)하고, 15세 이상 고용률(63.5%, 0.0%p) · 경제활동참가율(65.4%, +0.1%p) 또한 5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.

* 5월 고용지표('23→'24년 %): <고용률(15세+)> 63.5 → **63.5** <고용률(15~64세)> 69.9 → **70.0** <경활률> 65.3 → **65.4**

② 취업자수 증가폭(+8.0만명)은 고용동향 조사주간(5.12~18일) 중 휴일(석가탄신일) 포함 등 일시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아 전월대비 축소되었다. 과거에도 조사주간에 휴일이 포함되어 근로일수가 감소(5→4일)하는 경우 취업자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던 사례가 다수* 있었다. 아울러, 강수일수 증가 등과 같은 기상여건 악화로 농림어업 고용 감소에 영향**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.

* '13.2월 26.3→13.6만명, '13.5월 26.4→18.0만명, '16.4월 21.4→17.2만명, '22.9월 80.7→70.7만명 등

** 조사주간 강수일수: ('23.5)1.5 → ('24.5)2.6(+1.1) / 평균기온(°C): ('23.5)20.1 → ('24.5)17.3(Δ2.8)
→ 농림어업 취업자수 증감(만명): ('24.4)0.5 → ('24.5)Δ3.4

③ 일평균 수출액이 6월에도 10%대 증가세를 이어가고, 카드승인액('24.5월 3.4%), 해외여행객 입국자수 증감('24.5월 55.5만명^{잠정}) 등 내수 지표들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 다만, 건설업·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업종별·계층별 고용상황을 점검(모니터링)하며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.

* 일평균 수출(전년비, %): ('24.1)5.9 (2)12.4 (3)9.9 (4)11.3 (5)9.2 (6.1.~10.)11.2

* 카드 국내승인액(전년비, %): ('24.1)5.3 (2)3.0 (3)3.0 (4)3.3 (5)3.4

* 해외여행객 입국자수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4.1)44.7 (2)55.1 (3)69.1 (4)57.4 (5)55.5^{잠정}

기획재정부 <총괄>	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중 (044-215-8530)
		담당자	사무관	송동원 (sdwp1111111@korea.kr)
고용노동부 <공동>	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	책임자	과 장	천경기 (044-202-7260)
		담당자	사무관	신효빈 (044-202-7284)



◇ 조사주간에 휴일 포함(5.15일 석가탄신일) 등 영향으로 고용증가세 일시적으로 주춤, 최근 경기 개선 흐름이 향후 고용에 긍정적 영향 전망

1. '24.5월 고용동향 특징

□ 고용률 **63.5%** (5월 역대 최고), 경제활동참가율 **65.4%** (5월 역대 최고), 실업률 **3.0%** (5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), 취업자수 **+8.0만명 증가**

○ 15세 이상 고용률(63.5, 0.0%p) · 15~64세 고용률(70.0%, +0.1%p) 모두 5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(각각 '82.7월~, '89.1월~)

* 고용률(15세+, %): ('23.4/4)62.7 ('24.1)61.0 (2)61.6 (3)62.4 (4)63.0 **(5)63.5**
 고용률(15-64세, %): ('23.4/4)69.5 ('24.1)68.7 (2)68.7 (3)69.1 (4)69.6 **(5)70.0**

○ 경제활동참가율(65.4%, +0.1%p) 5월 기준 역대 최고('99.6월~)

* 경활률(15세+, %): ('23.4/4)64.4 ('24.1)63.3 (2)63.6 (3)64.3 (4)65.0 **(5)65.4**

○ 실업률(3.0%) 소폭 상승(+0.3%p), 실업자수 **+9.7만명 증가**

* 실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3.4/4)0.8 ('24.1)4.8 (2)2.5 (3)5.2 (4)8.1 **(5)9.7**
 실업률(15세+, %): ('23.4/4)2.6 ('24.1)3.7 (2)3.2 (3)3.0 (4)3.0 **(5)3.0**

○ 취업자수 전년대비 **+8.0만명 증가**(39개월 연속)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3.4/4)30.3 ('24.1)38.0 (2)32.9 (3)17.3 (4)26.1 **(5)8.0**

□ **(산업) 제조·서비스 증가 지속, 건설·농림 감소 전환**

○ **(제조)** 수출 개선 등으로 6개월 연속 증가, 증가폭 축소(+3.8만명)

* 제조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3.4/4)△2.6 ('24.1)2.0 (2)3.8 (3)4.9 (4)10.0 **(5)3.8**
 * 수출(전년비, %): ('23.3/4)△9.7 (4/4)5.8 ('24.1)18.2 (2)4.9 (3)3.1 (4)13.8 **(5)11.7**

○ **(서비스)** 39개월 연속 증가 지속(+11.6만명)

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3.4/4)28.5 ('24.1)28.6 (2)27.9 (3)14.5 (4)14.0 **(5)11.6**

- 숙박음식(+8.0만명)은 입국관광객 증가 등으로 증가폭 확대, 돌봄수요 지속되며 보건복지(+9.4만명) 증가세 지속

* 숙박음식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3.4/4)2.5 ('24.1)△0.8 (2)△0.2 (3)0.7 (4)2.9 **(5)8.0**
 * 보건복지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3.4/4)9.4 ('24.1)10.4 (2)7.2 (3)5.0 (4)9.3 **(5)9.4**

- 도소매업(△7.3만명)은 소매업 중심으로 감소폭 확대,
사업시설(△6.4만명)은 건설현장 인력알선업 중심 감소 지속
 - * 도소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3.4/4)0.6 ('24.1)0.0 (2)0.2 (3)△1.4 (4)△3.9 **(5)△7.3**
 - * 사업시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3.4/4)1.7 ('24.1)△4.5 (2)△1.9 (3)△5.1 (4)△6.6 **(5)△6.4**
- **(건설) 건설수주 둔화** 등 영향으로 취업자수 감소 전환
 - * 건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3.4/4)3.9 ('24.1)7.3 (2)3.6 (3)2.2 (4)0.5 **(5)△4.7**
- **(농림어업) 기온 하락 등 기상여건 악화** 등으로 감소 전환
 - * 5월 기상여건('23→'24년): [강수일(일)] 1.5→2.6 [평균기온(°C)] 20.1→17.3
 - * 농림어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3.4/4)△0.4 ('24.1)△0.7 (2)△3.3 (3)△5.0 (4)0.5 **(5)△3.4**

□ **(지위·연령) 상용직 비중 56.7% (5월 역대 최고), 청년 고용률 감소 전환**

- **(지위) 상용직 비중 5월 기준 역대 최고, 증가폭 축소(29.3→7.5만명)**
 - * 상용직 비중(5월, %):('00)29.7 ('05)34.4 ('10)41.5 ('15)47.9 ('20)53.7 ('23)56.6 **(24)56.7**
임금근로자 증감('24.5월, 전년비, 만명): <상용>**7.5** <임시>**24.9** <일용>**△11.6**
- 고용원無 자영업자 중심 비임금근로자 감소폭 확대(△12.8만명)
 - * 비임금 증감(전년비, 4→5월 만명): <고용有> 0.0→**0.4** <고용無> △9.4→**△11.4** <무급> 1.0→**△1.9**
- **(연령) 30대·50대 및 60세 이상 고용률 지속 증가**

(전년비, 만명, %p)	청년층	30대	40대	50대	60세 이상
인구 증감	△24.3	+0.8	△15.2	+8.3	+46.7
취업자 증감	△17.3	+7.4	△11.4	+2.7	+26.5
고용률 증감	△0.7	+1.0	+0.1	△0.4	+0.3

- 청년 고용률 2개월만에 감소 전환(^{4월}+0.2→^{5월}△0.7%p)하였으나, 주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역대 2위로 높은 수준
 - * 청년층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4.1)0.2 (2)0.5 (3)△0.3 (4)0.2 **(5)△0.7** 【46.9%】
- 30대는 인구증가 대비 취업자수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 40대도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
- 50대는 고용률 하락하였으나 역대 2위로 높은 수준, 60세 이상은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취업자 증가·고용률 상승 지속
 - * 50~59세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4.1)0.4 (2)0.5 (3)0.1 (4)△0.5 **(5)△0.4** 【78.1%】
 - * 60세 이상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4.1)1.1 (2)0.6 (3)0.2 (4)0.6 **(5)0.3** 【47.4%】

2. 평가 및 대응

□ (평가) 조사주간 휴일 포함 등 특이요인으로 취업자 증가흐름 일시적 주춤

* 조사주간 5.12~5.18일 중 석가탄신일(5.15일 수) 포함되어 근로일수 전년대비 감소(5→4일)

- 휴일 영향으로 평균 취업시간 4.2시간 감소 → 단시간 근로자 일부가 미취업자로 일시적 이동 추정
- 취업시간 변동영향을 크게 받는 고용원^無 자영업자(△11.4만명), 무급가족종사자(△1.9만명) 취업자수 큰 폭 감소
- 과거에도 조사주간에 휴일이 포함되어 근로일수 감소(5→4일)시 취업자 증가폭이 일시적 축소 후 회복되었던 사례 다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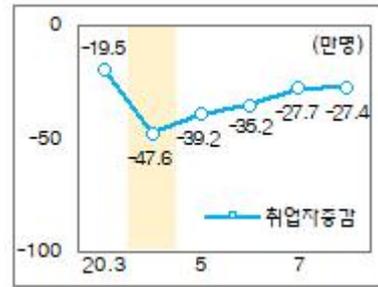
'13.2월 및 5월(감소 후 반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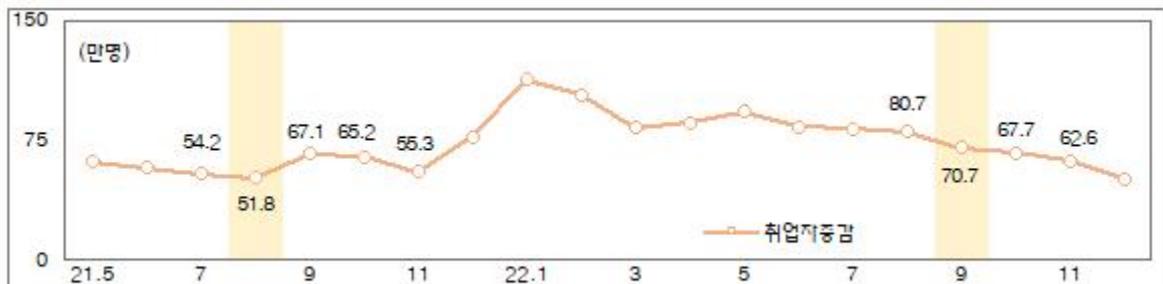
'16.4월(감소 후 반등)



'20.4월(감소 후 반등)



'21.8월 및 '22.9월



※ 상용·임시직 증가폭 축소되었으나, 포괄범위 유사하고 조사주간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4월과 유사한 증가세

* 경찰 상용·임시 증감(전년비, 만명): (24.1)45.7 (2)56.4 (3)38.3 **(4)49.3 (5)32.4**

*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24.1)34.1 (2)31.3 (3)27.2 **(4)24.4 (5)24.0**

- 기온 하락 등 기상여건 악화 등도 농림어업 고용 감소에 영향

	'24.3월	'24.4월	'24.5월
조사주간 강수일수	+0.9('23년1.2→'24년2.1)	+0.2('23년2.4→'24년2.6)	+1.1('23년1.5→'24년2.6)
평균기온	△0.4('23년8.2→'24년7.8)	+3.2('23년13.2→'24년16.4)	△2.8('23년20.1→'24년17.3)
농림어업 취업자	△5.0	+0.5	△3.4

- 다만, 15~64세 고용률 사상 최초 70% 달성, 15세 이상 고용률 역대 최고('23.5월과 공동 1위) 기록 등 고용지표는 대체로 양호
- 실업률 소폭 상승(3.0%, +0.3%p)하였으나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

□ (전망) 최근 경기 개선 흐름이 향후 고용에 긍정적 영향 전망

- 5월 일평균 수출, 카드매출액, 입국관광객 등 개선세 지속
 - * 일평균 수출(전년비, %): ('24.1)5.9 (2)12.4 (3)9.9 (4)11.3 (5)9.2 (6.1~6.10)11.2
 - * 카드 국내승인액(전년비, %): ('24.1)5.3 (2)3.0 (3)3.0 (4)3.3 (5)3.4
 - * 해외여행객 입국자수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4.1)44.7 (2)55.1 (3)69.1 (4)57.4 (5)55.5^{잠정}
- 주요기관도 하반기 20만명대, 연간 25만명 내외 취업자 증가 전망
 - * 주요기관 취업자수 전망('24.下 / 연간): [한은^{5월}] 24 / 26 [KDI^{5월}] 22 / 24
- 다만, 건설·도소매업 취업자 감소 등 고용 하방위험 상존
 - 건설수주 부진이 시차를 두고 건설업 고용에 영향을 주고, 온라인 쇼핑 증가 등으로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하는 모습

□ (대응) 업종별·계층별 고용상황 모니터링 +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력 강화

-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청년·여성·중고령층 맞춤형 취업지원 추진과 함께 경영안정·경쟁력 강화 등 소상공인 대책 마련
-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등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가속화
 - 건설경기회복지원 방안('24.3월),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('24.6월) 등 旣마련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